

## 고향에서 떠나온 자들이 흘리는 눈물

서경식의 《나의 서양미술 순례》와 자크 브렐의 〈마리크〉

형들은 감옥에, 부모님은 저승에 보내고 난 뒤 두 오누이는 상송 가사에 이끌려 벨기에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그들은 운명처럼 한 그림과 마주하게 된다. 그 그림에서 그가 본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고향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 상송 가사와 고향에서 폄박받는 재일동포의 삶이 아이러니컬하게 부딪히는 이 지점에 《나의 서양미술 순례》가 자리한다.

1983년 유난히 더운 여름을 보낸 일본 교토의 한 오누이는 지장보살을 기리는 불사인 '지장분' (地藏盆)이 끝나갈 무렵, 유럽여행이나 하고 올까 생각했다. 그들은 비행기 요금이 푹 떨어지는 10월을 기다려 벨기에의 브뤼주로 갔다. 그 해 10월 15일 토요일이었다.

쫓기듯 벨기에의 낯선 고장까지 다른 이 오누이는 교토에서 태어난 재일조선인. 그들 위로 세 명의 형이 있으나 그 중 두 명은 조국 북쪽의 간첩이라는 이유로 조국 남쪽의 교토소에 갇혀 있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떠나고 싶었던 까닭을 이로써 알 수 있지 않을까? 서경식의 《나의 서양미술 순례》(창작과비평사)는 이렇게 씌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왜 벨기에의 브뤼주인가? 이 순례의 시작지점이 브뤼주로 결정된 원인을 그는 짐짓 무책임하게 말한다.

“브뤼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다만, 그 무렵 자주 들던 자크 브렐의 상송 〈고향 마리크〉에서 ‘브뤼주에서 강으로...’ 어쩌구하는 지겹게 되풀이되는 구절이 내 컷가에 맴돌고 있었던 게 무의식중에 내 발길을 브뤼주로 이끌었는지 모를 일이지 하다.”

브뤼주에서 그는 우연히 호로닝헤 미술관에



고향을 사랑해 타히티에 묻힌 벨기에 출신의 상송가수 자크 브렐의 앨범 〈Les Flamandes〉

들려 해랄드 다비드의 그림 〈잠부세스왕의 재판〉을 보게 된다. 17세기 플랑드르 사실화의 선조격인, 조금은 끔찍하기까지 한 그 그림을 보면 서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린다. 그는 지나가듯이 “한많은 죽음이었다”고 말하고는 아버지의 혼이 이웃집 아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다며 느닷없이 빙의현상을 얘기한다.

그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돌이켜보건대 나의 ‘서양미술 순례’의 시작이었다”고 말한다. 그 까닭은? “과묵한 장인적 연찬과 수련만이, 보편성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 조국을 떠나 타히티에서 죽은 사나이

서경식씨의 조부가 식솔을 거느리고 일본으로 건너간 그 이듬해인 1929년 자크 브렐은 벨기에 샤비크(Schaarbeek)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판지공장에서 일하며 틈틈이 종이에서 시를 적어내려가던 자크는 1953년 노래 두 곡이 담긴 레

코드를 취입했다. 이 레코드가 후에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되는 자크 카네티의 눈에 띄면서 파리로 가게 된다. 그때부터 그는 시인·배우·가수·감독을 동시에 겸하는 재능을 발휘한다.

한 비평가는 그를 일러 “밥 딜런만큼 시적이고, 존 레논만큼 성찰적이며, 브루스 스프링스틴처럼 힘이 넘치는 동시에 격렬한 무대 매너는 에디트 피아프를 떠올리게 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서경식씨도 설명한 바와 같이 그는 1973년부터 고갱이 머물렀던 섬에서 지내는 등 고갱송배자가 되더니 1978년 폐암으로 죽은 뒤에는 소원대로 타히티에 묻히게 됐다.

서경식씨가 들었던 〈Marieke〉는 1961년 발표한 노래로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가 뒤섞였다. 브뤼주와 강에서 마리크란 연인과 나눴던 추억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이 노래에 ‘플랑드르의 하늘’이란 가사가 나오듯이, 또 그가 〈플랑드르 사람〉이란 흥겨운 노래도 불렀듯이 파리로 떠난 그에게 고향의 기억은 늘 따라다녔다. 그의 딸인 프랑스 브렐은 “진짜 아버지는 플랑드르적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플랑드르 기질을 꽤나 사랑스러워하셨지요”라고 말한 바 있다.

자크 브렐에게 플랑드르가 있다면, 서경식씨에게는 조부의 고향인 충청남도 가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긍정할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그에게 조선어를 가르쳐준 조선인 선배가 있었다. 선배는 항상 생글거린다. 어느날 술에 취한 서경식씨는 거리에서 우연히 본 그를 뒤쫓아 달려가 말했다. “이런 인생일 뿐인데, 어째서 늘 웃고 있죠? 그 미소로 어떤 아픔을 감추려는 거죠?” 스무살 때의 일이었다. 그가 무심코 집어든 석간신문에서 서울에 유학중인 형들이 구속됐다는 기사를 읽은 것은, 그로부터 얼마 뒤의 일이었다.

서승·서준식·서경식 형제들이 지나온 세월 위로 조국을 떠나 타히티에 가서 죽은 사내의 노래가 겹쳐진다. “아이 마리크, 마리크, 브뤼주와 강의 담들의 색깔, 플랑드르의 하늘, 아이 마리크, 마리크, 브뤼주에서 강까지 나와 함께 울던 플랑드르의 하늘...” - 김연수 기자